



누보다 쌀이 많다

홍은희/중앙일보 논설위원

“그 래도 누보다 쌀이 많아요.”
 ——— 대학교수로 강단에서 후학을 지도하
 며 틈틈이 짬을 내어 사비를 털어가며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을 벌
 이고 있는 지인이 얘기 끝에 친정아버지가 늘상
 들려주던 말이라며 내게 한 말이다. 3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 겉포장을
 뜯고 보면 제 속셈만 가득 한 지도층들의 위선에
 분노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함께 절망을 나누던 다음인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란 껍질을 제대로 까지 않은
 쌀을 말한다. 비록 쌀자루 속에
 그런 누 투성이라고 해도 결
 코 누가 쌀보다 많을 수는 없
 다는 것이다. 쌀보다는 불칭
 객인 누가 눈에 쉽게 뜨이고
 그래서 불평하기 쉽지만 자루
 속에 든 것 전체로 놓고 보면 쌀
 과 누의 비율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는 게 사실이
 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교통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다고 열을 올
 리지만 안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로 도배를
 한다고 해도 저질 욕설을 퍼붓는 사람보다 격을
 갖추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집단 따돌림
 에 학교 폭력, 배우고 가르치기를 포기한 학생과
 교사로 학교교육이 붕괴됐다고 사회가 들썩여도
 수업에 열중하고 올바른 제자 지도를 위해 고민하
 는 학생과 교사가 더 많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미
 디어가 제공한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어느덧 그것이 전부인양 착각하기 쉽다.
 미디어의 사명은 일부일지라도 잘못된 것을 고발
 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를 바로 잡는 것이 책무
 임을 잊어버린 탓이다.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남
 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사랑보다는 허물이
 더 눈에 들어오고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못마땅하거나 서운한 점이 마음에 남는
 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붙들고 살
 아가기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한을 쌓아간다.

술과 사람을 좋아해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는 일이라곤
 거의 없던 직장 선배가 간 수술
 이후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직행’하다가 어느날 모처럼 늦자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아내가 펄펄 뛰더라며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귀가시간이
 늦던 날이 태반일 때는 모처럼 퇴근 후 곧장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며 이상하게 여기던 아내
 였기 때문이다.

몇 톨 되지 않은 누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으로
 가슴을 짊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누가 아
 무리 많다고 해도 쌀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혼련
 을 하자. 마음의 여유는 절망과 포기를 뛰어넘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어떤 경
 우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 사
 고’ 입을 잊지 말자. PPFK

